

Economy Brief

4Q 국내 수출도 순항

Economy Brief

[경제] 박상현 2122-9196 shpark@imfnsec.com

Check Point

4분기 국내 수출 역시 강한 모멘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 4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조사(EBSI)는 111.3으로 3분기 107.0대비 4.3pt 상승함

4분기 EBSI 지수 중 눈에 띄는 것은 그 동안 다소 부진했던 일부 비반도체 업종의 EBSI 지수가 큰 폭으로 개선된 것으로 조사된 점임

만약 4분기중 이란 리스크가 완화되어 국제유가가 안정을 찾는다면 4분기 국내 수출 모멘텀이 더욱 강해지는 동시에 무역수지 흑자규모가 더욱 확대될 여지가 있음

4Q 국내 수출도 양호할 전망. 비반도체 업종의 수출 개선 기대

9월 국내 수출이 월간 기준 1,000억 달러를 상회하는 이정표를 기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4분기 국내 수출 역시 강한 모멘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표하는 4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지수(EBSI)에 따르면 동지수는 111.3으로 3분기 107.0대비 4.3pt 상승했다. 4분기 EBSI 지수 상승을 견인한 것은 역시 반도체 등 IT 업종이다. 4분기 반도체업종 EBSI 지수는 140.7로 3분기(142.6)보다 소폭 둔화되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3분기 EBSI 지수가 2분기(191.4) 대비 큰 폭 둔화되었지만 <그림2>에서 보듯 반도체 수출증가율은 오히려 2분기보다 3분기가 더욱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따라서 4분기 반도체 수출증가율도 높은 수준이 유지될 공산이 크다.

4분기 EBSI 지수 중 눈에 띄는 것은 그 동안 다소 부진했던 일부 비반도체 업종의 EBSI 지수가 큰 폭으로 개선된 것으로 조사되었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기계류 업종의 EBSI 지수는 3분기 87.8에서 4분기 112.6으로 큰 폭으로 개선되었고 선박업종의 EBSI 지수도 4분기 138로 3분기 115.7대비 큰 폭으로 개선되었다. 이 밖에도 석유 및 화학제품, 가전업종의 EBSI 지수도 상승했다. 반도체 중심의 강한 수출 모멘텀이 지속되는 가운데 일부 비반도체 업종의 수출도 개선 추세가 가시화된다면 4분기 수출은 규모 측면이나 내용 측면에서도 상대적으로 양호해질 수 있을 것이다.

미국 제조업 경기 및 투자사이클이 양호하다는 점도 4분기 국내 수출 모멘텀을 지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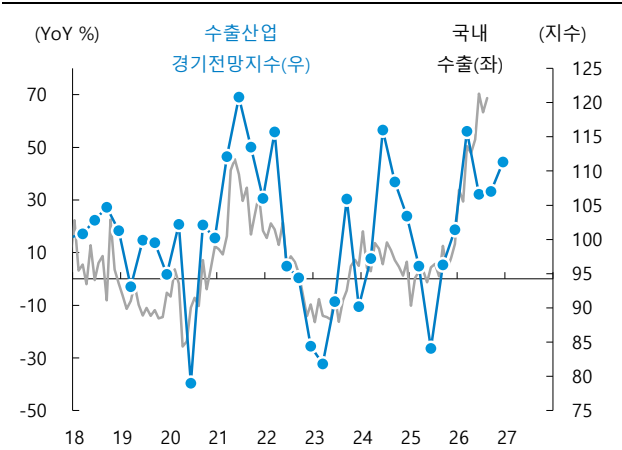
당사의 지난 9월 28일 자료(성장과 금리간 싸움)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 경제지표는 예상보다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국내 수출 경기의 선행지표 혹은 동행지표 역할을 하는 미국 제조업 PMI지수와 비국방 자본재 수주의 강한 상승 흐름은 국내 수출 경기사이클에 긍정적 시그널이다. 미국내 AI 투자를 중심으로 한 투자사이클이 강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도체 수출 등이 강한 모멘텀을 유지할 공산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수출호조에 힘입어 무역수지 흑자 규모도 4분기 중 더욱 확대될 여지가 크다. 1~8월 국내 무역수지 흑자규모는 이미 2,026억 달러를 기록 중이며 6월부터는 매월 300억 달러가 넘는 흑자 행진을 이어오고 있다. 4분기 수출 호조를 고려할 때 현 추세는 상당기간 지속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올해 연간 무역수지 흑자규모는 최소 3,200억 달러를 상회할 전망이다. 역사상 가장 큰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던 2017년 952억 달러보다 3배이상 큰 무역수지 흑자 규모다.

만약 4분기중 이란 리스크가 완화되어 국제유가가 안정을 찾는다면 4분기 국내 수출 모멘텀이 더욱 강해지는 동시에 무역수지 흑자규모가 더욱 확대될 여지가 있다. 4분기 국내 GDP 성장률의 추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는 동시에 달러 공급측면에서 원화의 추가 강세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고금리 장기화 리스크가 잠재해 있음이 4분기 국내 수출 경기 모멘텀에도 가장 큰 잠재적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그림1. 4분기 수출 산업경기전망지수는 3분기보다 상승



자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Bloomberg, CEIC,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2. 4분기 반도체업종의 수출 산업경기전망지수는 3분기보다 소폭 둔화. 그래도 여전히 높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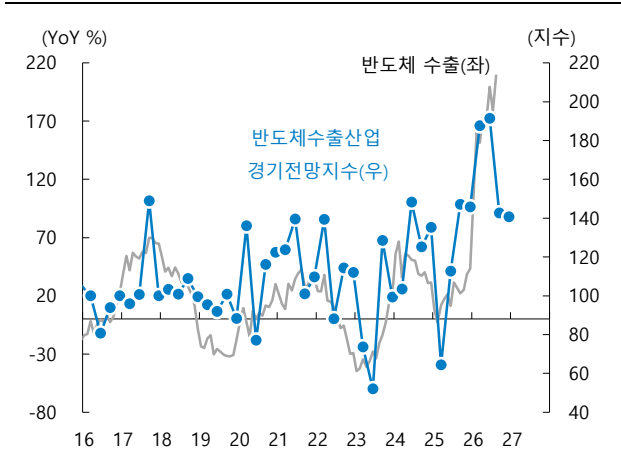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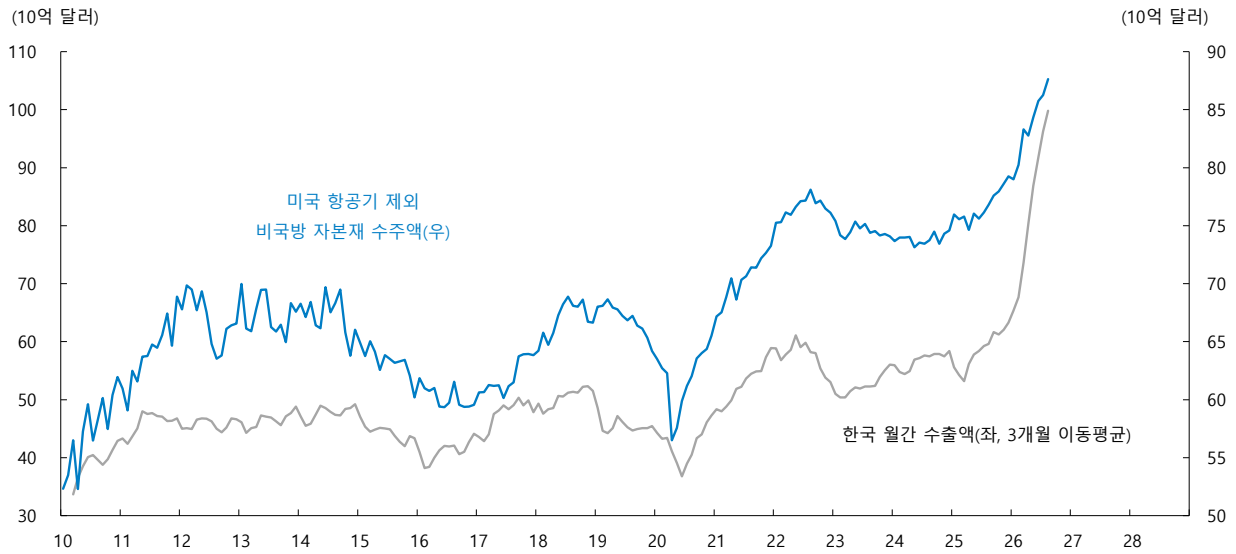
그림3. 업종별 수출 산업경기전망지수. 일부 비반도체 업종의 4분기 수출 산업경기전망지수 개선이 눈에 띈다

		2025년	2026년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차산업		99.2	90.1	80.2	91.3	86.5
	농수산물	99.2	90.1	80.2	91.3	86.5
경공업		74.2	97.6	61.9	82.4	87.8
	플라스틱·고무·가죽제품	62.4	93.2	58.4	76.0	93.2
	섬유·의복제품	80.7	84.7	73.9	77.4	80.1
	생활용품	96.6	110.4	65.8	96.7	79.0
중화학공업		115.6	118.3	111.9	110.0	114.3
	석유제품	99.8	96.7	102.9	98.2	99.5
	화학공업	103.2	105.4	77.2	82.1	92.5
	철강·비철금속제품	109.3	111.3	53.4	99.0	87.7
	기계류	92.5	92.9	76.7	87.8	112.6
	가전	96.5	97.9	51.3	98.6	101.1
	전기·전자제품	93.4	70.4	65.4	74.1	100.7
	무선통신기기·부품	119.2	108.3	104.1	120.3	134.3
	반도체	145.8	187.6	191.4	142.6	140.7
	자동차·자동차부품	69.3	95.8	61.4	97.7	93.9
	선박	110.3	147.2	96.2	115.7	138.0
	의료·정밀·광학기기	102.6	111.5	75.5	110.8	114.4
전산업		101.4	115.8	106.6	107.0	111.3

주: 분기별 수출경기전망지수 상위 3개 품목은 붉은색, 하위 3개 품목은 파란색 음영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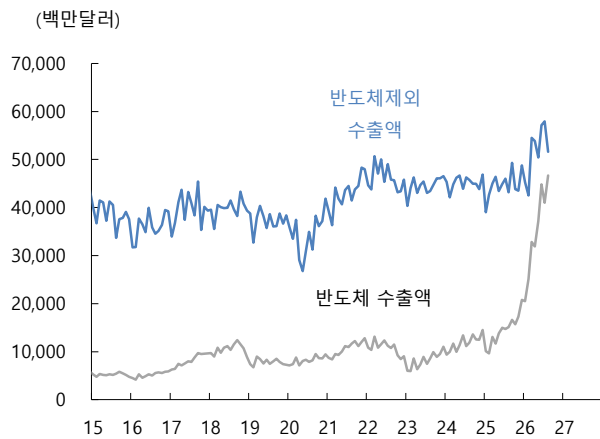
자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4. 국내 수출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미국 비국방 자본재 수주액 규모는 강한 상승세를 유지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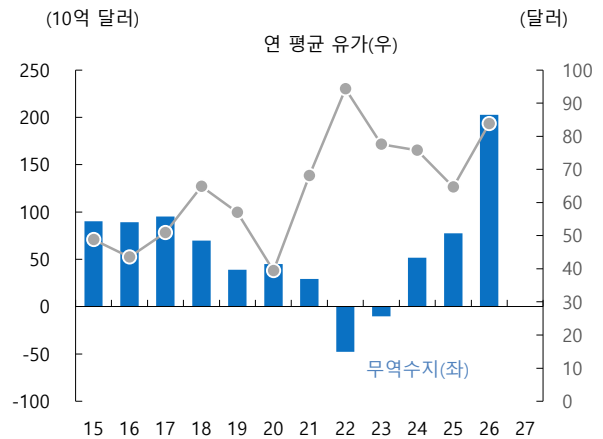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CEIC,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5. 4분기 비반도체 업종의 수출 규모 증가세가 빨라질 수 있음



자료: Bloomberg, CEIC,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6. 고유가 부담에도 불구하고 올해 국내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최소 3,200억 달러를 상회할 전망(26년은 1~8월 기준임)



Compliance notice

-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및 제 3자에게 E-mail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
-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박상현)
- 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따라서,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제,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 무단전제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